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

387. 천국 안의 할 일은 셀 수 없이 많고 각 공동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겠다. 각 공동체가 선에 따라 구분되고(41항 참조)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 구분되므로 각 공동체에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 천국의 모든 선은 행동하는 선, 즉 쓰임새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모두는 자기 쓰임새를 다한다. 주의 나라는 쓰임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388. 천국에도 땅에서처럼 많은 분야의 일이 있다. 그곳에도 교회의 일, 사회적 일, 가정적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교회 일이 존재함은 하나님 예배를 다룬 곳(221-227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의 일은 천국의 다스림을 다룬 곳(213-220항)을, 가정 일은 천사들의 집과 거처를 다룬 곳(183-190항)과 천국의 결혼을 다룬 곳(366-368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천국 각 공동체에는 많은 역할과 분야가 있음을 보여준다.

389. 천국의 모든 것은 신적 질서에 따라 짜여져 있고 어디서나 천사들의 관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전체의 복리나 쓰임새에 속한 일은 보다 지혜로운 천사들이, 그리고 세부적인 쓰임새에 속한 일은 덜 지혜로운 천사들이 맡는다. 신적 질서에 따라 쓰임새의 서열이 정해지듯이 천사들의 지위가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성은 그 쓰임새의 중요성에 따라 각 역할에 관련하여 주어진다. 그러나 천사는 존엄성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전부 쓰임새에 돌린다. 쓰임새란 그가 수행하는 선이고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천사는 존엄성을 또한 주님께 돌린다. 따라서 명예는 쓰임새에 주어지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예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쓰임새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아무 쓰임새가 없다. 그것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며 자기를 으뜸으로 놓고 쓰임새는 둘째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쓰임새라고 할 때는 아울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금 말했듯이 쓰임새는 선이며 선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390. 이것을 보면 천국에서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구든 쓰임새를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중요시하면 그만큼 그 쓰임새와 관련된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은 쓰임새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께 돌리는 정도만큼 사랑 받고 존경받고 존중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고 그가 수행하는 쓰임새를 선한 동기로 행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랑, 존경, 존중이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쓰임새에 대한 사랑, 존경, 존중이고 그의 쓰임새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쓰임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영적 진리의 견지에서 사람을 보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 견지에서 보면 사람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 단 한가지 식별되는 차이는 지혜의 차이뿐이다. 지혜는 쓰임새를 사랑하는 것, 즉 민족, 사회, 나라, 교회에 유익한 것(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은 모든 선, 즉 쓰임새의 선은 주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이웃사랑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웃이란 민족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선을 의미하며, 그 선을 그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391. 모든 천국 공동체들이 그들의 선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41항 참조), 그들은 쓰임새에 따라 구분된다. 선이란 행동하는 선, 즉 이웃사랑의 선이며 그것이 바로 쓰임새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들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다. 또 다른 공동체들은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또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 좋은 성품을 지니게 되어 천국에 들어온 소년 소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등을 맡는다. 기독교 사회에서 온 단순한 선인들을 가르쳐 천국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들도 있고, 다양한 비기독교 민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공동체들도 있다. 이 세상에서 방금 도착한 영들을 악한 영들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공동체들도 있다. 낮은 땅⁴⁷⁾에 있는 영들을 돌보는 공동체들, 지옥의 영들을 돌보며 그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공동체들도 있다. 죽음에서 깨어나는 영들을 돕는 공동체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 공동체의 천사들은 사람에게 보내져 사람을 지키면서 악한 애정과 그에 따른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고 사람이 자

47) terra inferiore (the lower earth) : 이 책의 후반(513항)과 저자의 다른 책(천국의 비밀 4728항)에서 '낮은 땅'은 중간영계 밑에 있는 구역으로 거의 지옥에 가깝지만 지옥은 아닌 곳을 말한다.

유 안에서 받아들이면 선한 애정을 불어넣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들은 또한 사람의 행위와 일이 가능한 한 악한 의도에서 멀어지게 조정한다. 천사가 사람에게 오면 그들 자신의 애정 안에 있는 것처럼 머문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이 진리로 비롯된 선 안에 거하는 정도만큼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사람의 생활이 선에서 먼 만큼 그 사람에게서 멀리 있다.

천사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천사들은 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 자기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내적 의미로 보면 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속성을 말한다. 같은 이유로 말씀에 천사를 ‘신들’이라고 한 것이다.

392. 이상은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고, 각자에게는 그만의 특수한 임무가 있다. 모든 보편적인 쓰임새는 매체가 되는 쓰임새, 봉사하는 쓰임새, 부수적 쓰임새 등의 무수한 쓰임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무수한 쓰임새들은 신적 질서에 따라 조직되고 분류되어 있으며 전체가 합쳐서 보편적인 쓰임새, 즉 공동선을 이루고 수행한다.

393. 천국에서 교회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서 진리를 열심히 추구했으며 명예나 이득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웃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천을 원하고 사랑한 정도만큼 천국에서 깨달음과 지혜의 빛을 받는다. 그들이 받는 이 지혜의 빛은 천국의 말씀에서 나온다. 천국의 말씀은 지상의 말씀 같은 자연적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다(259항 참조). 이들은 설교자 직분을 수행하는데, 신적 질서에 따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깨달음에서 오는 지혜가 뛰어나다.

(2) 사회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의 유익보다 전체의 유익을 더 사랑했으며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정의의 법칙을 사랑하여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지성적이 된 정도만큼 그들은 천국에서도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지성에 맞는 지위 또는 수준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 그들의 지성의 정도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 쓰임새를 사랑하는 정도와 같다.

(3) 더욱이 천국에는 무수한 역할과 분야와 일이 있다. 이 세상의 직업은 그에 비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모두 쓰임새에 대한 사랑에서 기쁘게 일하고 수고한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나 이익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주어지므로 그들은 생계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들은 집과 옷과 음식을 모두 거저 받는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쓰임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그의 몫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사람의 사랑, 즉 애정은 이 세상 삶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영원히 뿌리뽑히지 않기 때문이다(563항 참조).

394.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응에 의해 자기 고유의 일을 하게 된다. 상응은 직무에 따르지 않고 각 직무의 쓰임새에 따른다(112항 참조). 모든 것에는 상응이 있기 때문이다(106항). 사람은 천국에서 자기의 쓰임새에 맞는 직업과 업무를 담당하며 이 세상에 살 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 차원은 상응에 의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단, 이런 차이가 있다. 천국에서는 사람이 영적인 삶, 즉 내적인 삶에 들고 따라서 천국의 축복을 받기에 더 합당해지므로 더 내적인 기쁨 안에 산다는 점이다.